

이달의 포커스 뉴스



베트남에 부는 자동차 한류 열풍

- 현대-Thanh Cong, 2020년 상반기 Toyota를 제치고 판매 1위에 등극

2P

코로나 19와 노동법 규정 및 대응방안

25P

베트남 해외시장뉴스	2
월간 뉴스 동향	9
프로젝트 동향	16
베트남비즈니스인사이트 <국영기업 민영화> ..	17
세무/노무	20
법률	25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컨터시>	30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36
아세안지역 거시동향 지표	40
공지사항 및 사업안내	41





베트남에 부는 자동차 한류 열풍

- 현대-Thanh Cong, 2020년 상반기 Accent의 인기로 Toyota를 제치고 판매 1위에 등극
- 소비자들, 과거 인기있던 일본 브랜드를 고집하기보다 가격 경쟁력과 합리성을 추구

현대 - Thanh Cong, 2020년 상반기 Toyota를 제치고 판매 1위에 등극

베트남 자동차 생산 협회(VAMA)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브랜드는 현대-Thanh Cong이었다. 현대 자동차는 베트남의 대표 자동차 생산업체인 Thanh Cong Group과 합작회사를 설립, 베트남에서 자동차를 조립·생산하며 가격경쟁력을 크게 높였다. 2019년 현대-Thanh Cong은 총 7만 9568대를 판매해 7만 9328대를 판매한 도요타를 근소하게 앞질러 2019년 판매 1위 회사에 등극했다. 혼다는 3만 3102대, 마쯔다는 3만 2731대, 포드는 3만 2175대로 3위 자리에서 각축전을 벌였다. 2019년 말 현대-Thanh Cong이 판매 1위 자리에 처음 등극하기 전까지 베트남 자동차 시장의 실권자는 도요타였다. 그러나 현대-Thanh Cong이 내수 조립·생산으로 자동차 가격을 낮추고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실행하며 2018년 대비 판매량이 25% 상승,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이를 지켜본 자동차 전문가들은 베트남 시장에서 도요타의 입지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말한다.

2020년 상반기 현대-Thanh Cong의 자동차 판매량

2020년 6월까지 현대-Thanh Cong에서 판매된 자동차는 총 2만 5358대에 달한다. 이는 총 판매량의 21.3%에 달하는 비율로 도요타의 시장 점유율인 21.1%를 근소하게 앞지른다. 현대-Thanh Cong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는 액센트로 2020년 상반기 총 7192대가 팔렸다. 2위는 Grand i10으로 총 5630대, 3위는 산타페로 3509대이며 투싼 3274대, 코나 2979대가 그 뒤를 잇는다. 베트남의 취·등록세는 1500cc를 기점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1500cc 이하의 차가 많이 팔리며, 이와 같은 이유로 현대-Thanh Cong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 두 모델은 액센트와 i10이다.

시사점

2019년 베트남의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11.7% 증가했으며, 중장기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 제조, 조립, 수입, 사업 운영에 관련된 결정서 Decree No. 116/2017/ND-CP를 개정할 계획이다. 2019년 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 11억5000만 달러의 자동차 및 부품을 수입했고 수입액은 전년대비 39.3% 증가했다. 현대, 기아차 등 우리 기업들의 자동차 브랜드 인지도가 매우 높아지면서 베트남 자동차 산업의 성장은 한국 관련 기업들의 수출 확대에도 큰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기·수소 등의 친환경차 분야는 베트남에서도 인프라 구축 및 정부 정책 준비 등이 초기 단계로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베트남은 산유국으로서 2020년 9월 기준 휘발유를 리터당 약 0.8달러(한화 9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소비자 입장에서조차 아직까지 친환경차를 선택할 경제적 유인이 크지 않은 것이다. 친환경차, 수소차, 충전 시스템 인프라 관련 사업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베트남에서 해당 부문의 발전가능성과 정부 지원 및 개발 정책 발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베트남 브라운필드형 외국인 투자 동향 및 유의사항

- 베트남 내 인수합병, 지분 투자 등 브라운필드형 투자
- 외국인 지분 획득 제한 여부, 회계실사 등 대상 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 필요

최근 베트남 외국인 투자방식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에는 베트남의 저렴한 토지사용료와 노동력을 이점으로 활용한 그린필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기업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브라운필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증가하는 對베트남 외국인 브라운필드 투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브라운필드 투자는 2016년 총 2,547건(34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9,842건(154억 달러)으로 '16년 대비 건수는 약 4배, 금액은 약 4.5배 증가하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비율로 환산해보면, 2016년 브라운필드 투자 건수와 금액은 각각 40.2%와 14%였으나, 2019년에는 각각 65.1%, 40.6%로 외국인 투자방식이 브라운필드형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對베트남 브라운필드 투자

베트남 1위 투자국인 한국의 브라운필드 투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對베트남 브라운필드 투자 건수는 2016년 644건(총건수 중 34.2%)에서 2019년 2,959건(총건수 중 64.9%)으로 약 30% 증가하였다. 금액 기준으로는 8억 9천만 달러(총 금액 중 12.7%)에서 26억 달러(총 금액 중 33.6%)로 약 2.6배 증가하였다.

베트남 브라운필드 투자 관련 법률 (기업 인수합병 사전신고제도)

베트남 경쟁법(23/2018/QH14)에서 기업 인수의 정의 중 '지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서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기업 인수를 명확히 판단할 기준이 없었으나, 최근 시행령 제정을 통해 해당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쟁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mmission)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對베트남 브라운필드 투자시 유의사항

베트남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낮고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인수 전에 철저한 회계, 법률, 관세 실사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 대상 기업 설립의 적법성 확인, ▲ 계약 채무 승계 여부와 채권, 채무의 종류, ▲ 지분 양수도에 대한 대금 지급과 수령 방식, ▲ 공장, 토지, 근로계약의 승계, ▲ 진행 중인 소송 유무 부분 역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 자산, 인허가, 계약 등에 대한 이전 동의 절차 필요 유무도 확인하여야 한다.





베트남 거주자들이 직접 말하는 건설업 및 부동산 동향

- 코로나 19의 여파로 하노이, 호치민의 아파트 및 상업지구 임대료 하락 피할 수 없어
- 해외자본 유치 증가로 하반기 부동산 산업은 활성화 예상

베트남의 건설업은 인프라, 대형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로 인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베트남의 건설업 분야는 전년대비 약 9~9.2% 상승했으며, 2015~2018년 연평균 12.4% 성장에 이어 2019년 연평균 10.9%의 성장을 기록했다. 2019년 건설산업 총 생산 규모는 미화 약 154억 달러로 GDP 기여도는 약 5.4~5.9%였다. 또한 2019년 베트남의 도시화율은 39.2%로서 전년대비 0.8% 상승했다

건설업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기획투자부 외국인 투자청(FIA)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베트남은 총 380억200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액을 유치했다. 이는 전년대비 7.2% 증가한 금액이다. 그중 건설업은 10.2%의 비중으로 2위를 차지했다. 2018년 건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11억 831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하고 역대 최고 투자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9년 투자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다.

한국 기업 베트남 부동산 진출 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지난 7월 2일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 입주가 가능한 ‘한국-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을 베트남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 받고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하노이 남동 측 약 30km 거리에 있는 흥옌성 산업도시에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경제협력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LH는 코리아데스크를 마련해 산업단지 입주 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복잡한 현지 인허가 및 입주 관련 행정 처리를 돕고 금융사를 활용한 자금조달 및 컨설팅 서비스도 구현할 계획이다.

신세계 건설은 작년 12월 9일 베트남의 리조트 회사인 빈펄(Vinpearl)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2020년 베트남의 대표 휴양지인 나트랑과 푸꾸옥에 ‘아쿠아필드’를 선보이기로 했다. 아쿠아필드는 신세계의 대형 쇼핑몰인 스타필드 내에 입점한 실내 레저 시설로서 워터파크, 스파, 푸드코트를 갖춘 복합 실내 휴양시설이다. 이 계약은 한국의 스타필드와 아쿠아필드를 직접 방문했던 빈그룹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빈펄 측에서는 호텔 및 쇼핑몰 등에도 아쿠아필드를 점차 입점시킬 것이라 밝혔다. 신세계 건설은 기존에 한국 스타필드 건설 시에 아쿠아필드 공사를 진행했던 한국 인테리어 및 시공업체와 함께 베트남으로 진출할 것이라 전했다.

시사점

베트남은 인구구조, 도시화율, 고도의 경제성장률이라는 부동산 3대 성장동력을 갖춘 나라다. CBRE는 베트남의 2020년 1분기 신규 아파트 공급량은 지난 4년 중 가장 적었으며, 신규 프로젝트도 모두 멈춰있지만 향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예상보다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량 제한으로 부동산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며 역량이 부족한 업체들은 과거 두 차례의 금융 위기 때 모두 퇴출 됐으므로 남아있는 대형 건설 및 개발사들은 이번 부동산 시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시장동향

- 코로나19로 건강관리가 트렌드화 되며 건강기능식품시장 고성장 기대
- 최근 다양해진 수요에 대비한 품목 다변화와 타겟 고객별 적절한 유통채널 선택 중요

베트남 기능식품 관리법(43/2014/TT-BYT)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미량 영양소 및 기타요소(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지방산, 프로바이오틱스, 그외 생물학적 활성물질)를 보충하는 일반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품별로 세부 분류되는 HS CODE는 상이하며, 그 중 자주 사용되는 HSCODE 2106.90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시장 규모 및 동향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5년 1,148백만 달러에서 2019년 1,828백만 달러로 최근 5년간(2015-19년) 연평균 7.5%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베트남 소비자들의 구매력 상승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가 베트남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사람들이 자가치료를 선호하는 점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실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수입규모 및 수입국 동향

2018년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수입시장은 약 586백만 달러로 2014년 대비 37.6% 성장하였으며, 미국과 싱가포르가 전체 수입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베트남의 한국산 건강기능식품 수입은 약 24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5년간(2014-18년) 연평균 성장률은 13.6%로 동 기간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수입시장 전체 성장률(6.6%)을 크게 상회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경쟁 동향 및 주요 기업

주로 미국산, 베트남산, 한국산 등이 유통되고 있으며, 글로벌 브랜드의 경우 프리미엄 시장, 현지 브랜드의 경우 저가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다. 베트남내 주요 한국산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유나이티드 제약사의 홈타민, KGC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등이 있다. 최근에는 CJ 헬스케어가 베트남 유통업체 비엠헤(Viet ha)와 ‘컨디션’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산 건강기능식품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다.

유통구조

2019년 기준 건강기능식품은 주로 약국(39.4%), 방문판매(28.4%), 드럭스토어(10.7%)를 통해 유통되었다. 최근에는 편리한 쇼핑환경과 품질 및 출처를 신뢰할 수 있는 드럭스토어 이용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구매도 활발해지고 있다.

관세율 및 규제

베트남에서 건강기능식품 HSCODE는 주로 2106.90.99가 사용되며, 한-베트남/아세안 FTA 협정세율 0%가 적용 가능하다. 베트남에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려면 수출자는 자유판매증명서(CFS)와 우수제조기준(GMP) 인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수입 및 유통 판매사는 관련 상품 공표, 라벨 표기 사항, 식품첨가물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베트남, ‘生生세계식품시장 르포’ 웨비나 참관기

- 베트남은 한국의 상위 4번째 농수산물식품 수출국
- 비교적 높은 베트남 농수산물식품 수입 관세율, 적절한 FTA 활용이 관건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8월 19일 서울푸드전 연계 ‘生生 세계식품시장 르포’에 참여해 베트남 식품시장 이해를 통한 우리기업 진출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베트남 농수산물식품 수입 시장 현황

베트남의 농수산물식품 수입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19년에는 그 규모가 126억 달러를 상회했다. 그 중 1차 농수산물식품(옥수수, 밀, 캐슈넛, 과일, 채소 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가공식품(사탕, 과자, 시리얼 등) 및 기타 식품 수입률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의 대베트남 농수산물식품 수출의 경우 과일은 8위, 사탕·과자 및 시리얼은 5위, 기타 식품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주요 식품 수입국은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외에는 미국 및 중국의 대량 수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식품 인지도 활용 우리 기업 진출 전략

베트남 소비자들이 한국 식품을 구매하는 주요 요인은 (1) 드라마, 예능과 같은 방송 콘텐츠를 통한 자연스레 한국 문화 인지 (2) 한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에 담긴 품질 신뢰도로 분석된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편의점, 대형마트 등의 현대식 유통채널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다만, 베트남 내 전통소매유통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

박일상 aT 호치민 지사장은 “한인 교포시장, 중국 교포시장, 현지마켓 순으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권기현 C&C 대표는 “수입제품의 경우 전통시장을 포함한 구유통 시장이 아닌 편의점, 대형마트 등과 같은 신유통 시장에서 먼저 판매를 시작해 시장 진출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베트남 수출 시 유의사항

베트남에 수입 유통되는 식품은 그 종류에 따라 식품 등록 절차 및 등록 기관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식품 등록은 베트남 수입(유통)업자가 진행하며, 한국 수출자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일반 식품류는 베트남 보건부를 통해 등록한다. 건강식품류, 미등록식품첨가제는 베트남 정부 관할 부서의 승인이 필요하며 자유판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가공식품, 음료의 경우 자체적 등록 후 관련 서류만 현지 보건부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농촌개발부 관할 식품은 검역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한해서 베트남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 건별 검역 및 검사가 필수 조건이다. 현재 수출 가능한 과일류는 포도, 딸기, 감, 배, 사과이며 육류는 가금류(닭고기 및 그 가공품)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다.

한편, 제품등록은 평균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추가 서류 제출 등의 요청이 있을 수 있어 3~4개월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 좋으며, 등록 비용은 100만~200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베트남, 프랜차이즈의 춘추전국시대

- 2018년 프랜차이즈법 개정됐으나 상세 법안 미비, 사업에 따라 준비기간이 다름에 유의
- 베트남 외식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메뉴의 현지화도 중요

베트남의 프랜차이즈 시장은 춘추전국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의 대형 쇼핑몰에 들어서면 주로 3~5층에 자리한 푸드코트 및 레스토랑 층에서 전 세계의 각종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 브랜드들을 볼 수 있다.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aT Center)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4월 기준 해외에 등록된 한국 식·음료 회사는 166개이며, 184개 브랜드가 총 4721개의 점포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의 총 7%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92개사, 미국 61개사, 베트남 34개사가 운영 중이다. 이 중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360개의 점포는 총 해외 진출 프랜차이즈 점포의 7.6%를 차지한다. 2019년 4월 기준 해외 진출 한국 프랜차이즈 점포의 연평균 매출은 16억 원으로 2018년 5억 9000만 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프랜차이즈 법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2018년 1월 15일 프랜차이즈 핵심 정의 및 요건과 프랜차이즈 운영규정 시행령(08/2018/ND-CP)을 공포하고 2018년 8월 8일 발효했다. 외식업체 영업을 위해서는 법인 설립 이후 위생 허가 등 서브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하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는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베트남 내에서 1년 이상 영업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사점

베트남의 프랜차이즈 법은 사업 내용에 따른 세부 조항이 미비하다. 그래서 출점하는 사업 분야에 따라 등록 서류나 기간이 상이할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관련 서류 및 매뉴얼, 등록증을 철저히 준비해야 준비 기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해외 법인 설립보다 베트남 현지 기업을 활용해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하는 것이 현지 시장 진출에 용이할 수 있다.

베트남의 식·음료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시장조사가 필수적이다. 롯데리아는 베트남인이 사랑하는 메뉴인 치킨 라이스(Com Ga)를 메뉴에 접목시키며 베트남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베트남에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지난 2018년 11월 진출한 즉석 떡볶이 뷔페 전문점 Dooki(두끼)는 진출 2년만에 베트남 전역에 30개가 넘는 매장을 오픈하며 전례없는 인기를 얻고 있다. 두끼의 김완엽 대표는 KOTRA 하노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1년 이상 현지 시장 조사를 하며 뷔페식 핫팟 및 샤브샤브 음식점이 베트남 현지인에게 큰 인기를 얻는 것을 보고 떡볶이 뷔페의 성공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과거 베트남에 수 많은 한국의 식·음료 기업이 진출해 왔다. 베트남 진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지 시장조사를 통해 현지인의 메뉴 선호도를 분석하고 베트남 외식문화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 에너지 드링크 시장

- 2019년 기준 627억 달러 규모

- 건강한 식품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에너지 드링크에 소비자 인식 변화에 주목해야

시장 규모

베트남 에너지 드링크 시장은 2019년 기준 14조5000억 동(627억 달러) 규모로,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소매 규모가 연 평균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에서 에너지 드링크는 2000년대부터 Number 1, Lipovitan, Rhino, Red Bull과 같은 음료 회사들의 무알코올 제품 중 하나로 시작했으며, 이후 Sting 또는 Samurai와 같은 다양한 브랜드가 론칭되며 더욱 확장됨. 타 음료 산업 대비 초반부터 즉각적인 주목을 받지는 못했으나, 최근 3년간 베트남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받으며 판매율이 높아지고 있음.

시장 동향

최근 베트남 사람들은 당뇨병, 고혈압 및 암 발병의 증가에 따라 건강 제품에 대해 점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음. 이는 베트남의 중산층 성장에 따라 건강에 좋은 제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 의사가 커지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설탕과 카페인 함량이 적고 영양가가 높으며 건강에 좋은 음료, 특히 더 영양가가 있고 건강에 좋은 음료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높아짐. 이러한 움직임은 베트남의 탄산 음료의 매출 성장률이 2011년 27.9%에서 2019년 9.3%로 감소한 것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며, 추후 2023년에는 5.7%까지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여행 제한, 대규모 모임 및 파티 등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음료수 산업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음. 음료 부문을 제외한 가공식품 등 타 일용소비재는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시사점

베트남의 에너지 드링크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편이나 최근 베트남 소비자들 사이에서의 건강한 식품에 대한 인식 제고는 에너지 드링크를 포함해 FMCG(일용 소비재) 제품군에 타격을 가하고 있음. 최근 에너지 음료의 과도한 소비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베트남 소비자들은 또한 에너지 음료를 보다 신중하게 소비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김. 식품 유통사 Thao Nguyen Plaza의 영업부장 Ms. Hong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에너지 음료를 일종의 각성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젊은 층의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인지도 있는 브랜드인지에 대한 여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최근 Red Bull의 경우 모조품까지 시장에 유통되기도 한다고 전함. 따라서 베트남의 도시인구 주도로 성장하는 제품의 특성상 에너지 드링크 제조업체는 설탕, 향료 및 차별화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마케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베트남 은행들, 해외지분제한(FOL)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보여

베트남의 일부 은행들은 적극적으로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다각화할 자본을 마련하고 국제은행 표준에 부합하도록 운영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임. 국영 상업은행 중 하나인 BIDV의 경우 지난 2019년 11월 하나은행에게 한화 1조원의 투자액을 유치한 바 있음. 외국인직접투자에 우호적인 베트남 은행은 BIDV, Vietcombank, Military Bank(MB), SHB등이 있음. 반면 다른 일부 은행들은 해외지분제한(FOL)에 대해 다소 신중히 접근함. HDBank의 경우 해외지분제한(FOL)을 21.5%로 고정하기로 결정함. 또한 VIB는 20.5%, Lien Viet Post Bank는 9.99%로 해외지분제한율을 고정함. 베트남 KB증권 연구원인 Nguyen Xuan Binh은 이와 같이 은행들이 다른 행보를 보이는 이유로 어떤 은행들은 충분한 해외투자유치액을 바탕으로 과감한 성장을 추진하는 반면, 다른 은행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영을 하겠다는 의도로 분석함.

[Vietnam Investment Review / 2020. 9. 25.]

▶ 베트남산 재화 수출량 지속 감소세

산업무역부(MoIT)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의 실현으로 베트남의 GDP가 300% 증가하였으며, 수출입 총액은 350% 증가하였다고 밝힘. 현재 베트남은 13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그 중에서 최초로 체결된 신세대 FTA는 태평양 횡단 파트너십(CPTPP)이며, 다음으로 베트남-유럽 자유무역협정(EVFTA)이 체결되었음. 2019년 베트남은 CPTPP를 통해 미화 16억 달러의 수출 초과를 기록하였음. 베트남은 또한 EVFTA의 효과로 2020년 8월 1달간 수출 총액 미화 2억7천7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Phap Luat / 2020. 9. 24.]

▶ 베트남, 올 8월까지 마스크 8억5천만 개 수출

올 8월까지 베트남에서 해외로 수출된 마스크 수량은 총 8억 5천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됨. 수출된 마스크 종류는 대부분 천 마스크, 황사 방지 마스크, 면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였음. 특히 8월 한 달 동안 70개 이상의 마스크 생산기업은 1억 3,500만개의 의료용 마스크를 수출함. 마스크 최대 수입국은 일본, 한국, 독일과 미국 순임. 뒤이어 홍콩, 싱가포르, 폴란드, 호주, 중국, 라오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순으로 수입함. 마스크는 코로나19 대유행 중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임. 코로나19가 해외 각 국에서 여전히 유행 중임에 따라 베트남의 세계시장으로의 마스크 수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Vietnam Times / 2020. 9. 24.]



▶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 시장,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입은 세계경제에서 필수 트렌드로 급 부상 중임.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매년 35%의 비율로 성장,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곳 중 하나임. 알리바바 베트남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닷컴은 코로나 19 발생 전과 비교하면 총성 구매자의 비율이 유지되고, 신규 판매자가 15%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렸다고 분석함. 반면 오프라인 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예상됨. 비록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해외 수출 판로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구매자를 지속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보고됨. 판매자와 구매자의 언어 소통 문제와 해외 구매자의 해외결제서비스 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것으로 알려짐.

[Vietnam Economic News / 2020. 9. 23.]

▶ 빠르게 성장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하는 베트남 축산 산업

베트남의 농업 생산량은 국내 수요를 충족하며, 수출로 매년 미화 4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매년 540만 톤의 고기를 생산함. 그러나 일시적인 수요-공급 불균형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음.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일부 시장에서 축산업에 주도권을 쥐고 있음. 동남아에서 베트남은 돼지 사육 두수 5위, 육류 가공품 생산 6위에 올라있고, 가금류(오리, 거위) 사육 부분에서는 2위이며 동남아시아 최대 우유 및 동물성 사료 생산국임. 그러나 여전히 베트남 축산 산업에는 일부 문제점들이 남아있음. 축산 산업으로 인해 매년 재활용이 불가능한 1억 톤의 폐기물이 발생함. 축산 산업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지만, 전체 소비량의 70%가 돼지고기에 편중되어있음. 베트남의 가축 사육 부분은 우수하다고 평가 받으나, 가공 분야에서는 미흡한 점이 발견됨. 극소수의 현대적인 도축장을 제외하면 여전히 소규모의 개인 단위의 도축장에서 위생 기준 미비의 도축이 되고 있음.

[Vietnamnet / 2020. 9. 22.]

▶ Apple 협력사 Pegatron, 베트남 내 기술 프로젝트에 미화 10억 달러 투자

Microsoft, Apple 및 Sony사의 협력업체인 대만의 Pegatron사는 미화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Hai Phong 시 Nam Dinh Vu 산업단지에 생산 복합단지를 건설 할 것이라고 기획투자부 보고서에서 밝힘. Pegatron Vietnam 1,2,3 프로젝트를 통해 2만2,500개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며, 국가 예산에 매년 미화 431만 달러를 기여할 것으로 밝혀짐. Pegatron사는 중국 R&D 센터를 베트남으로 이전 할 계획으로 Pegatron 3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2026-2027년도에 이전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기획투자부의 보고서는 베트남이 ASE Technology Holding(대만, 중국)의 회원사인 Universal Global Technology와 협력하여 Samsung 및 Lenovo사에 스마트 시계, 스마트폰, 헤드폰을 위한 회로 기판 제조 공장을 짓는데 투자를 요청하고 있음.

[Hanoi Times / 2020. 9. 21.]

▶ 강경화 외교부장관, 베트남 총리와 회담

지난 9월 17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응우옌 쉰옌 푸크(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와 회담을 가짐. 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특별입국절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눔. 또한,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한국-베트남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입찰등급제 등 베트남 공공의료기관 입찰 규정에 대해 푸크 총리와 논의함.

[Vietnam Investment Review 2020. 9. 18]



▶ 베트남, 8월 무역수지 35억 달러 흑자 기록

통계청은 베트남의 8월 수출액이 미화 265억 달러로 전월 대비 6.6% 증가 했다고 발표. 8월 총 수입액은 230억 달러로 전월대비 4.1% 증가함. 이에따라 올 8월 베트남의 무역수지는 35억달러 흑자를 기록함. 수출액이 10억 달러 이상인 품목은 휴대폰 및 부품, 전자제품, 컴퓨터, 의류 등 29개 품목이며 이들 품목은 총 수출액의 89.7%를 차지함. 삼성전자가 출시한 노트20 시리즈 수출량 증가가 수출액 증가에 부분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8월 말까지 누적 수출액은 미화 1,741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으며 올 8월까지 누적 수입액은 1,622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2% 감소함. 8월 누적 무역수지 흑자는 134억 9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99억 달러 대비 35.9억달러 증가함. 올 8월 무역수지 흑자는 외환보유고 증가에 기여했으나 무역수지 흑자는 수출 증가가 아닌 수입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짐

[The Saigon Times / 2020. 9. 18.]

▶ 베트남산 재화 수출량 지속 감소세

산업무역부(MoIT)에 따르면 당초 올해 베트남 재화 업계의 수출 목표액 이었던 미화 24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베트남 세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개월 간 베트남 재화 수출 총액은 미화 10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9.46% 감소한 수치라고 밝힘.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최대 수입국인 미국 및 EU에서의 주문량 감소로 인하여 베트남 재화 시장의 수출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기존 많은 양을 수입하던 중국 및 일본에서도 주문량 감소로 인하여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

[Vietnamnews / 2020. 9. 17.]

▶ 베트남, 2030년 풍력 발전 시장 아시아 5위권 달성 목표

GWEC Market Intelligence의 최근 시장 전망에 따르면, 베트남은 총 5.2GW 용량 규모의 풍력발전으로 2020-2030년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52 GW), 대만(10.5GW), 대한민국(7.9GW) 및 일본(7.4GW)에 이어 5위를 차지 할 것으로 보임. 베트남은 많은 국제 개발자, 투자자 및 금융업 종사자들에게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풍력 발전은 정부의 '친환경 경제' 부분에서 해양 기반의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며, 에너지 안보를 중요시 하는 상황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음. 정부는 올 7월 기존의 종합 계획에 따른 4.8GW 규모의 78개의 풍력 발전 설비에 더불어 91개, 7GW 규모의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승인함.

[Hanoi Times / 2020. 9. 17.]

▶ 베트남, 호텔 매매 등록 건수 사상 최다 기록

코로나 19의 여파로 베트남의 관광업은 심각한 침체에 빠짐. 이에 따라 베트남의 호텔 매매 등록 건수가 1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연일 증가하고 있음. 호치민, 하노이 및 해안 도시들의 호텔이 판매를 위한 매물로 나오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 호텔 · 관광업은 코로나 19의 타격을 제일 크게 입은 분야 중에 하나임. 일부 호텔들은 영업을 중단했고, 나머지는 영업 중단 기간 동안 리모델링을 진행함. 코로나 19의 완화나 종식을 전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호텔들은 손해를 감수하며 영업 중에 있으며, 소유주들은 유동성 확보 및 부채 상환을 위해 판매를 고려하고 있음. 현재 많은 매물들이 시장에 나와있지만 거래 규모는 아주 미미하며, 판매자 및 구매자 모두 코로나19의 향후 전망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전년 대비 거래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Vietnamnet / 2020. 9. 16.]



▶ 위드 코로나 시대, 호주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한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해외투자국의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9년까지 호주로부터 미화 20억 달러 이상의 누적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500개 이상의 호주 기업이 베트남에 직접 투자 한 것으로 알려짐. 베트남과 호주의 2019년 교역 총액은 78억 달러에 육박 했으며 2018년 교역 총액은 77억 3,200만 달러에 달했음. 호주 정부는 경제가 코로나19 여파로부터 회복되면 중국으로 일원화 되어있던 생산지 다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 호주 기업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타 개발 도상국으로 공급망을 다변화 하도록 원조하고 있음. 2017년 호주와 베트남의 양국 관계는 전략적 제휴국으로 격상되어 강력한 자금력, 건전한 경영 방식, 첨단 기수를 보유한 호주 기업들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각광 받고 있음. 이에 따라 호주의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중임. 지난 8월 호주의 대표 물류업체 Logos는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호치민, 하노이, 다낭 등의 포괄적 물류시설 개발을 목표로 미화 3억 5천만달러를 투자하여 Logos Vietnam Logistics Venture를 설립한 바 있음.

[Vietnam News / 2020. 9. 15.]

▶ 베트남 경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안정세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0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하였으며, 2021년에는 6.3%로 회복 될 것으로 예상함. 앤드류 제프리스(Andrew Jeffries) ADB 베트남 디렉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저하와 베트남 내수 경기 침체로 베트남 경제가 예상보다 큰 타격을 입었지만, 베트남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조치로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고 말함. 한편, 2020 아시아경제전망(ADO) 업데이트는 △탈 중국화 움직임 △중국경제 회복 △EVFTA 발효가 베트남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함.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글로벌 무역분쟁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은 베트남 경제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

[ADB 2020. 9. 15]

▶ 취·등록세 50%감면도 되살리기 어려운 자동차 업계

올해 6월 총리는 국내 생산 자동차 및 다른 차량들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실행한다고 밝힌 바 있음. 정부는 이 특소세 혜택을 통해 자동차 업계가 회복 하기를 기대했으나 현실은 자동차 업계의 매출 부진이 이어지는 중임. 베트남 내에 조립·생산 공장이 있는Mercedes-Benz사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폭발적 수요 증가는 발생하지 않음. 베트남 내의 최대 유통사인 Haxaco사의 지분이 있는 TMT Motors 주식회사 및 Giai Phong Motor 주식회사 등이 지속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음. 게다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2차 유행은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관련업계 근로자들의 임금 및 고용안정에 영향을 주었음. 또한 자동차는 아직 베트남에서 사치품으로 분류됨. 코로나19 유행 이후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 때문에 자동차 구매 수요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Vietnamnews/ 2020. 9. 14.]



▶ 코로나 19의 악몽이 계속되는 베트남 극장 산업

코로나19 유행 이후 감염의 공포 때문에 극장을 찾는 관객수가 대폭 감소함. 2차 유행을 성공적으로 통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영화 및 극장 산업은 계속 고전 중임. 베트남 최대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점인 CGV는 7월 말 코로나19 재유행 이후 베트남 전역 총 82개 극장 중 7개의 성·시에 위치한 9개 극장 영업을 폐쇄 했다고 전함. 코로나 19 유행 이후 사람들은 집에서 안전하게 드라마와 영화를 시청하기 위해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을 늘림.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들은 코로나19가 티켓 판매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영화 개봉을 연기하거나 넷플릭스 및 IPTV플랫폼으로 시장을 전환하여 홍보 중인 것으로 알려짐.

[VN Express / 2020. 9. 11.]

▶ 베트남산 새우의 EU 수출 큰 폭으로 증가

베트남수산물수출가공협회(VASEP)에 따르면 베트남산 새우의 총 수출액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음. 이는 2020년 8월 1일부로 적용된 유럽 - 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에 따른 것으로 보여짐.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유럽으로의 수출은 전년도 동기 대비 20%가 증가하였음.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라 기존에 부과되던 일반 특혜 관세 4.2%가 면제로 바뀌었으며, 태국 및 인도의 새우에 비해서 가격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음. 유럽은 현재 베트남산 새우를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4번 째로 많이 수입하며, 베트남 전체 수출량의 13.3%를 소화하고 있음. 코로나 19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산 새우의 유럽 수출은 지속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Hanoi Moi / 2020. 9. 10.]

▶ 피치 솔루션스, 올해 베트남 경상수지 3.7% 전망

피치 솔루션스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베트남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 4.9%에서 올해 3.7%로 줄어든 것이라 전망. 관광업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서비스업의 무역수지가 크게 하락한 것에 기인함. 반면 1차 경상수지 적자는 외국 인직접투자 유치와 높은 외화보유고로 인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또한 피치 솔루션스는 베트남이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수입을 주로 한다는 가정 하에 대외 재화 무역수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함.

[Vietnamnews / 2020. 9. 10.]

▶ 호치민시, 삼성전자 베트남에 대한 수출 지원을 위해 세금 면제 추진

호치민시, 삼성전자 호치민 가전 복합회사(Samsung Electronics HCMC CE Complex, SEHC)를 현재의 제조 기업에서 수출가공기업으로 전환, 수출입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의 보고서를 폭 총리에게 제출, 승인을 요청함. 현행법상 수출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수출가공기업으로 분류, 수출입 관세면제 및 다른 세제감면 혜택을 줌. 삼성전자가 수출가공기업으로 전환된다면 시의 지원을 받아 생산과 사업에 집중,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커짐. 호치민시는 보고서에서 SEHC에 대한 관세면제는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게 좋은 투자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시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삼성전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삼성의 경쟁력을 강화 시키며 베트남이 삼성 세계진출의 핵심 기지라 되고 베트남의 협력업체도 이익을 본다고 강조함. 지난 2018년 사이공하이테크 파크 관리위원회는 삼성전자를 위해 위와 동일한 제안을 한 적이 있으나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SEHC의 수출 수익률이 75%에 그쳐 재무부가 반려한 바 있음. 2020년 SEHC의 수출 수익률은 총 이익인 49억달러의 90%인 44억 달러에 이르러 현행법 기준에 부합 하는 것으로 알려짐.

[VN Express / 2020. 9. 9.]



▶ 베트남 동화, 수 년간 안정세

달러화의 약세와 베트남의 외화 보유고가 상승함에 따라 올해도 베트남 동화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베트남 중앙은행 (SBV)에 의하면 베트남 동화는 올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 되었으며, 1달러 당 23,205 VND를 기록하였음. 베트남은 올 8개월 간 미화 119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외화 공급이 상승함. 9월 4일 폭 총리는 베트남의 외화 보유고가 미화 920억 달러에 근접하였으며, 올해 말 까지 미화 1천 억 달러에 도달 할 수 있다고 밝힘. 베트남 정부는 환율 정책을 통해 무역 대상국과 불공정하게 경쟁하지 않는 다고 단언하지만, 미국은 종종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 명단에 등재하고 있음.

[VN Express / 2020. 9. 8.]

▶ 베트남 지자체, 콘도텔 투자 규제 강화

베트남 지자체들은 콘도텔, 오피스텔 및 리조트 빌라들에 대한 건설, 투자 및 거래에 대한 관리 방안 강화를 검토 중이며 Binh Dinh 지역에서는 관련 토지 개발 프로젝트들의 허가가 중단된 상태임. 사회안전부는 콘도텔 및 리조트 빌라들의 단기간 개발 금지 및 용도변경 불가를 제언하였음. 사회안전부에 따르면 이러한 부동산들의 투자, 건설 및 관리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기존 법안으로 쉽게 해결 할 수 없다고 밝힘. 이에 따라 콘도텔 및 리조트 빌라 문제는 각 지자체들의 관리 능력을 넘어서고 있음. 많은 투자자들이 요구조건을 갖추더라도 이러한 상품들을 판매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음. 많은 상황에서 개발자들이 구매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구매자에게 위험 부담을 증가 시키며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음.

[Vietnamnet / 2020. 9. 7.]

▶ 스마트 시티 개발에 주목하는 베트남

2018년 8월 베트남 총리실은 기획, 관리, 유틸리티 발굴의 3대 주축 비전 제시를 골자로 스마트 시티 개발 사업을 승인한 바 있음. 베트남은 ASEAN국가 최초의 26개 스마트 도시 중 세 곳인 하노이, 호치민, 다낭 스마트시티를 건설 중임. 이 세 도시는 교육, 의료, 건설, 환경보호 분야에서 스마트 도시 기준에 부합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 중임. 특히 호치민 시는 현재 2군, 9군, 투득군에 걸쳐 투득(Thu Duc) 신도시를 건설 계획을 발표함. 이 도시는 호치민 경제 생산량의 1/3 혹은 국가 생산량의 7%를 차지할 수 있는 금융 허브와 연구개발 센터로 지정되어 개발될 예정.

[Vietnamnews / 2020. 9. 4.]

▶ 코로나 19의 여파를 실감하는 호치민 사무실 임대 시장

호치민시 사무실 임대 시장은 A등급 건물이 B등급 판정을 받는 등 임대료가 하락하며 코로나19의 여파를 체감하기 시작함. B등급은 1제곱미터당 30달러 미만의 임대료를 내는 건물임. CBRE에 따르면 2분기에는 호치민에 사무실 신규 공급이 거의 없었으며 2019년과 올해 1분기 신규 사무실 시장 흡수율도 여전히 낮다고 밝힘. 많은 사업자들이 재정긴축을 원하고 현재 임대한 건물에 계속 남거나 교외 혹은 도심 가장자리의 저렴한 사무실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올 1분기에 신규 공급된 사무실의 공실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알려짐.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재택근무를 선택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생산성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됨. 이로 인해 사무실 임대 시장 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전망이다.

[Vietnamnet / 2020. 9. 3.]



▶ EU로의 수출이 2,600% 증가한 베트남산 다랑어

베트남수산물수출가공협회는 발표자료를 통해 7월 유럽으로의 수산물 수출이 전년도 동기 대비 2607% 증가하였다고 밝힘. HS code 0304번 품목에 대해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음. 독일, 이탈리아 및 네덜란드에서는 3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각각 119%, 200% 및 210%를 기록하였음. 총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이후 7월에는 65% 상승하였음. EVFTA 체결 이전 베트남산 수산물의 유럽으로의 수출은 최소 3주 가량이 걸렸음. 이러한 영향으로 7월부터 유럽에서는 통관 우대를 통하여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있음. 유럽 이외에도 이스라엘 및 캐나다 2개의 국가로의 수출 총액 또한 각각 26% 및 146% 증가하였음. 미국은 베트남산 새우 수입 순위 1위의 국가로 베트남 전체 새우 수출의 22.8%를 담당하고 있는 큰 시장임. 7월 미국으로의 새우 수출은 45.3% 증가하였으며, 올해 7개월간 수출 총액은 미화 4억3천5백20만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33% 증가한 수치임.

[Zing / 2020. 9. 3.]

▶ 지난 8개월간 4% 가량 상승한 베트남 물가

베트남 통계 총국은 발표자료를 통해 베트남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도 동기 대비 3.96% 상승하였다고 밝혔음. 8월 한 달 기준으로는 0.07%의 상승을 보였음. 베트남의 도심지역은 3.51% 물가 상승이 이루어졌으며, 농촌 지역에는 4.41%의 물가 상승이 있었음. 소비자 물가 지수 계산 11개 품목 중 7개의 품목에서 가격이 상승하였음(식음료 0.11%, 음료 및 담배 0.05%, 주택 및 건설 용품 0.1%, 의약품 0.02%, 교통 0.1%, 교육 0.18%, 물건 및 기타 서비스재 0.2%). 3가지 항목(의복, 모자, 신발 0.03%, 정보통신 0.05% 및 문화, 레저, 여행 0.2%)에서는 지난 달 대비 물가가 하락하였음. 2020년의 물가 상승률은 최근 5년 동안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의료 장비들의 가격은 전년도 동기 대비 1.45% 상승하였음.

[Tuoi Tre / 2020. 9. 2.]

▶ 베트남 맥주업계 2분기 매출 상승

닐슨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베트남의 맥주 소비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7% 감소했으나 5월 생산량은 2~4월 간 월평균 생산량보다 60% 상승함. 베트남 최대 맥주회사인 사이공 맥주 (Sabeco)의 순익은 올해 약 23% 증가하여 2021년 미화 14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하노이 맥주 (Habeco)역시 최저 주가를 기록했던 4월에서 반등하여 주가가 25% 상승했다고 알려짐

[VN Express / 2020. 9.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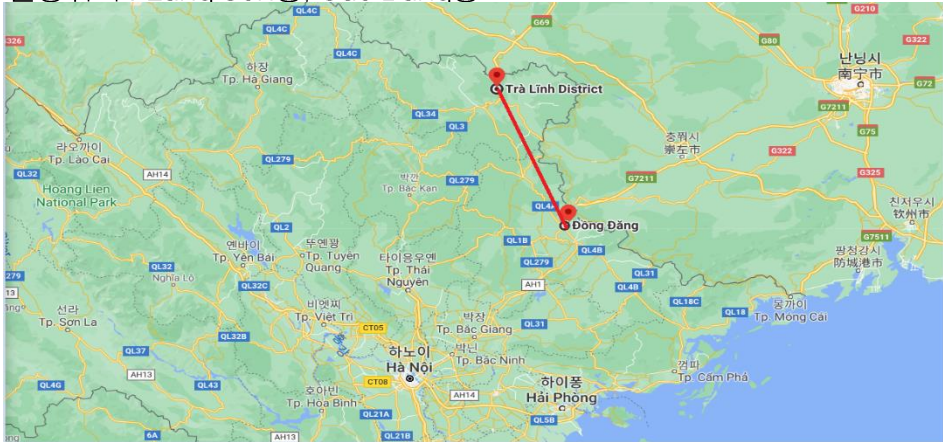
(입찰정보)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Tai Tam Wind Power Plant Project
- Hung Bac Wind Power Plant Project
- 베트남 Vung Ang 3 LNG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 Ha Tinh 공항 건설 프로젝트

*세부 프로젝트 정보는 KOTRA 하노이무역관으로 별도문의

2. 프로젝트 세부정보

발주처	○ 기관명 : Cao Bang Planning and Investment Department Cao Bang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 웹사이트 : https://sokhdt.caobang.gov.vn/ ○ 연락처 : 84-206-3852 182
프로젝트	○ 프로젝트명 : Dong Dang - Tra Linh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 현장위치 : Lang Son성, Cao Bang성  ○ 규모 : 약 902백만 달러 (1단계: 540백만, 2단계: 362백만) ○ 프로젝트 재원 : PPP(BOT), - 1단계 : 투자자 325 백만, 정부예산 215백만 ○ 프로젝트 단계 : Pre F/S 완료 (Deo Ca Group, 20,08.10 승인) ○ 입찰예정일 : 2021년 (잠정) ○ 세부내용 : - 총 연장 : 115km (1단계 : 93km, 2단계 : 22km) - 구간 : · 1단계 : Km0+00 at intersection of Tan Thanh border gate - Km 93+00 at intersection of Highway 3 · 2단계 : Km 93+00 to Km 115+00 at Tra Linh border gate - 차선 : 4차선, 17m - 속도 : 60km-80km/h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

로투비Law2B | 김유호 대표 | 베트남 법무부 공식 등록 미국변호사 & 파산관재인
ceo@law2b.kr | +84(0)90 438 7074

1. 개요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1992년부터 시험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여, 2010년 심각한 부실 문제가 수면으로 떠 오른 비나신(Vinashin: 국영 조선사) 디폴트 사태를 계기로 민영화를 통해 부채와 재정 적자를 처리하고 개혁과 효율적인 경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COVID-19상황에서도 베트남 총리와 수석부총리가 직접 각 부처에 민영화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 같다. 특히 베트남 투자공사(SCIC), 재무부(MOF), 기획투자부(MPI) 등 민영화를 진행하는 여러 소관부서 때문에 일괄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빠른 진행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사실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건전한 투자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베트남 주식 시장이 조정 장세일 때는 가치 평가에 대한 우려로 일부러 지분 매각 시점을 늦추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

한국 투자자로서는 베트남의 불투명한 가치 평가 방식, 복잡한 민영화 절차, 그리고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소수 지분만 매각하고, 외국인 보유 지분 제한 규제 때문에 국영기업의 지분을 매수한 후에도 실제 경영에 참여해 경영 노하우를 유입하고 선진기술을 전수하기가 쉽지 않아 민영화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한국 기업이 베트남의 주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임은 분명하다. 이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대략적인 국영기업의 민영화의 절차를 소개하고, 특히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할 한국 기업을 위해 전략적 투자자 선정 절차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국영기업 민영화 절차

국영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주식회사화(equitization) 과정에서도 일부 지분을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그 이후 주식회사화한 국영기업의 정부지분과 자산 매각(divestment)을 통해서 추가로 국가나 국가가 소유한 기업이 보유한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하기 때문에 사실 equitization도 민영화이고, divestment도 민영화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equitization과 divestment의 전체 과정도 민영화이다. 실무적으로는 종종 equitization, divestment, privatization을 혼용하여 모두 민영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마 베트남에서 민영화(privatiz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굳이 주식회사화(equitiz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국영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민간기업이 일부 지분을 소유한다고 해도, 주식회사화한 국영기업도 계속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에 따라 운영되며, 민간기업에 경영·지배권을 넘긴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1.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equitization)

- 1단계: 주식회사화 계획 수립
- 2단계: 주식회사 전환 계획 실행
- 3단계: 최종 주식회사 전환 작업

2.2.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 SI) 선정 절차

- ① 국영기업의 민영화/주식회사 전환 계획 승인
- ② 자본의 규모, 사업의 성격 및 발전 계획에 따라 컨설팅 회사(있는 경우)와 협력하여 전략적 투자자 선정 기준과 주식 오퍼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국영기업의 주식회사 전환 계획에 추가
- ③ 국영기업 민영화 운영위원회(ESC)는 전략적 투자자의 주식 매각 절차를 평가하고, 대표기관*에 국영기업의 주식회사 전환 계획(전략적 투자자 선정 기준, 주식 매각 비율 및 가격 등 세부사항 포함)에 대한 승인 요청
 - ※ *대표기관(representative authority)이란 주식회사화한 국영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있는 중앙/지방 도시의 인민위원회나 정부 부처 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조직을 의미한다.
- ④ 대표기관이 국영기업의 주식회사 전환 계획을 승인한 후 5일 이내에, 주식회사화한 국영기업은 전략적 투자자에게 주식을 오퍼하는 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대중매체에 공고
- ⑤ 주식회사화한 국영기업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략적 투자자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자격을 갖춘 전략적 투자자의 명단을 통합해 운영위원회와 대표기관에 승인을 요청한다.
 - ※ 주식회사화한 국영기업은 전략적 투자자가 국영기업의 사업과 금융 등에 관한 세부 검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고, IPO 경매 시행 전에 주식매입 자격을 갖춘 전략적 투자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⑥ ESC는 대표기관이 승인한 전략적 투자자 명단에 근거하여 주식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 투자자에게 주식을 매각한다.
- ⑦ 전략적 투자자와의 공식약정 계약을 체결



2.3. 정부 지분 매각(divestment)

3. 국영기업을 주식회사화한 후 정부 지분 및 자산 매각(divestment)

국영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한 후에도 일반적으로 정부는 주식회사화한 국영기업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책에 따라 정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로 매각할 수 있다. 베트남 국내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 모두 이 후속 정부 지분 매매에 참여할 수 있다.

주식회사화한 국영기업의 주식은 HOSE, HNX 또는 UPCoM에 상장 또는 등록되었다면, 관련 증권 거래소 규정에 따른 시간 외 장외거래(put-through) 방식과 주문 매칭(order-matching) 거래를 통해 장내에서 매각하거나 장외 매각을 할 수도 있다.

4. 국영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foreign ownership limitation)

2020년 말까지 민영화 추진할 국영 기업 목록에 대한 결정문(decision 26/2019/QD-TTg; "결정문 26")에서는 국가의 지분이 최종적으로 (i) 65% 이상, (ii) 50~ 65%, 또는 (iii) 50% 미만을 보유할 93개의 국영 기업 목록을 분류하여 명시하였다.

국가 지분을 65% 이상 유지하는 4개의 국영기업은 Vietnam Bank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gribank), Vietnam National Coal-Mineral Industries Holding Corporation (Vinacomin), Vietnam Northern Food Corporation (Vinafood 1), and Mineral Single-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y이다. 50~ 65%의 지분을 보유하는 62개의 국영기업은 통신, 교통, 인프라 개발 산업 등인데, Vietnam Mobile Telecom Services Corporation, Vietnam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Group (VNPT), Vietnam Cement Industry Corporation (VICEM), Hanoi Transport Corporation,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Corporation, Vietnam National Chemical Group (Vinachem) 등이다. 국가가 5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는 나머지 27개 국영기업은 Vietnam Paper Corporation, Saigon Jewelry Company (SJC),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HUD) 등이다.

결정문 26과 별도로 산업별로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이 다르니 관련 법의 면밀한 검토도 함께 필요하다.

<상기 내용은 필자의 저서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과 '베트남 트렌드 2020'(공저)에서 관련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며, 한국의 법률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 및 근로계약 (노동법 2021년 시행 개정안 하에서)

서우회계법인베트남 조성룡회계사
csrgs@seouvietnam.com | 098-548-7377

금번에는 근로대가별 근로소득세의 과세방식과 근로계약서의 종류, 고용관련 보험료 및 부담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 1월부터 개정된 노동법이 시행되오며, 이에 영향을 받는 세제사항에 대해 재고해 보겠습니다.

고용관계에서 근로자가 고용주와의 사이에서 수령할 수 있는 근로제공의 대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제공의 대가형태별 근로소득세 과세

구분	근로소득세 영향	부연설명
급여 및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급여 성격의 수당)	근무기간에 따라 상이한 근로소득세율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임.	소액 비과세소득 존재함. 현물보조를 통한 직원복리후생비도 과세소득이 됨.
시간외근무수당 및 특정 조건 충족시 수당 (성과급, 비간헐적 사유로 인한 수당 등)	근무기간에 따라 상이한 근로소득세율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임.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시간에 지급되는 시간당 급여를 초과하는 초과할증급에 대해서 비과세
퇴직금	비과세	평균월급여 x 50% x 근속연수. 단, 고용보험 가입자는 해당사항없음
퇴직위로금 (현행 노동법 44조 근거)	비과세	상호합의하에 근속년수당 1개월 급여로 하되, 최소 2개월 이상의 평균월급여 지급.



• 근로계약의 종류 및 유의사항

근로계약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Duration (계약기간)		PIT obligation (근로소득세의무 설명)	SHUI obligation (사회보험료 설명)	2021년 개정노동법
1. 수습계약	60일 이하의 단기계약에만 해당함.		2백만동 이상은 급여총액에 10%단일 세율, 미만은 근로소득세 면제. 또한, 근로자가 받는 년 과세표준이(급여에서 인적공제 제외금액)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급여확약 서를 수령하고 실제로 년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소득세 면 제할 것임.	수습계약기간만을 위한 계약서만 존재 시는 면제. 수습 및 정직원채용 조건 계약서 통합시 에는 납부함.	세율은 동일하나, 수습 시간은 관리자의 경우 180일로 증가.
2.임시계약 으로서 도제 훈련계약 및 인턴십 계약 포함)	3개월 미만	시급자	2백만동 이상은 급여총액에 10%단일 세율, 미만은 근로소득세 면제. 또한, 근로자가 받는 년 과세표준이(급여에서 인적공제 제외금액)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급여확약 서를 수령하고 실제로 년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소득세 면 제할 것임.	납부함.	세율은 동일하나,유한 기간계약으로 통합됨. 임시계약 및 도제훈련 계약도 90일 이내로 한정됨.
		전임근무			
	3개월 에서 12개월 미만 계약	시급자	9%-35% 누진세율	납부함.	
		전임근무			
3. 유한기간 계약	12개월 에서 36개월 계약	시급자	9%-35% 누진세율	납부함.	
		전임근무			
4.indefinite term 무한계약	연속 2회 체결시 부터 무한계약으로 전환		9%-35% 누진세율	납부함	



• 사회, 건강 및 실업보험(SHUI)

사회 보험(Social insurance, “SI”) 및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UI”) 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개인 및 2018년 12월부터는 Decree 143/2018/ND-CP 에 의거 social insurance에 대해서도 work permit을 가지고, 1년이상 로컬소재 법인/PMO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본사로부터 베트남회사/PMO에 파견온 한국인 근로자는 하기 면제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면제조건:

단, 1년이상 본사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고 노동계약이 본사와 체결된 주재원 및 파견근로자는 SI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SI/HI/UI 기여금 납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근로자(2017년 6월이후)

	SI	HI	UI	Total
근로자	8%	1.5%	1%	10.5%
고용인	17.5%	3%	1%	21.5%

√외국인근로자(2018년 12월 이후)

	SI	HI	UI	Total
근로자	8%(2022년 1월 이후)	1.5%	0%	1.5% (2021년 12월까지); 9.5% (2022년 1월이후))
고용인	3.5% (2018년 12월 이후); 17.5% (2022년 1월 이후)	3%	0%	6.5% (2018년 12월 이후); 20.5% (2022년 1월 이후)

SI/HI/UI 의 기부금 책정에 적용되는 급여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급여로 하되, 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의 20배 (29,800,000)를 최고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149만 동으로 매년 변경될 수 있음)

법으로 정해진 고용자의 기부금 납부액은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비로 법인세비용 처리되며,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SI/HI/UI 기부금은 근로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의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첫월에 한해, 14일이하 근무시에는 SHUI면제됩니다.

통상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과세표준으로 기부금은 책정됩니다.

고용계약서의 종류에 따라, SHUI의 면제대상이 달리 적용됩니다.



• 노조지원금

노조지원금: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사회보험 기부금 책정대상 급여의 2%.

법인세법상 노조지원금은 비용인정됩니다.

사용대상: 상위노동조합에게 납부한 경우, 상위노동조합은 해당근로자들에게 65%를 사용함.

• 2021년 1월 시행되는 노동법의 회계 및 세무영향

- √ 시간외근무수당 손금불산입 한도액 감소하나 여전히 존재함. 증가한 일인 근로자당 년 300시간을 한도로 시간외근무를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변동으로 인해 관할 DOLISA에 갱신사유 발생함
-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은행계좌이체 실행시 관련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함.
- √ 사용자는 임금지급시에 매번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 시간외근무수당, 급여공제내역을 명기한 급여명세서를 발행해야 한다.
- √ 노동법의 대상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도제훈련계약 및 인턴십 계약 및 실질적 근로계약관계자를 대상으로 확대해석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및 SHUI보험료 납부대상도 확대해석될 가능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 √ 복수노동조합의 가능해 지므로, 노조지원금을 지급할 대상도 복수도 확대될 지를 향후 추가입법내용을 통해 살펴야 합니다.



베트남 내 외국인용 비자 정보 : 2. 비자면제 제도 및 기타 주요정보

* 지난달 노무 소식 '베트남 내 외국인용 비자 정보 : 1.비자 종류 및 발급대상'에 이은 내용입니다.

□ 비자면제 제도

* 베 정부, '20.2.29일부로 일부 특정국가(한국포함)에 대한 비자 면제제도 잠정 중단

구분	주요내용	
시민 (일반 여권 소지자 포함)	체류기간별 비자면제 (최대)	(14일) 브루나이, 미얀마
		(15일) 대한민국, 벨라루스,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러시아, 일본, 프랑스,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30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90일) 칠레
	푸꾸옥 섬 입국과 관련한 비자면제	- 푸꾸옥 섬에 출입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30일 이내의 임시 체류와 함께 비자가 면제됨 - 외국인이 베트남 국제 국경문에 입국하여 해당 국경문의 환승 구역에 머무른 다음 푸꾸옥 섬으로 옮길 경우도 비자가 면제됨
	자격 요건	- 해당인의 국가 감독관청 에서 발급한 여권 - 입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기존 비자면제에 따른 출국시점부터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함
외교여권, 관용여권 및 특수여권 소지자	- 베트남과 각 국가 간의 조약 및 사증 면제 협정에 따라 달라짐 - 한국인 - 비자 면제는 외교관 여권 소지자, 임시 체류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관용 여권 소지자에게 적용될 수 있음 - 체류 기간은 외교공관 및 영사관의 요청에 따라 연장 될 수 있음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 소지자는 사전에 비자를 신청하고 무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 근무 기간 동안의 비자 면제는 공관·영사관·국제기구 구성원 및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가족포함)에게 적용	

□ 기타 주요사항 (한국인용)

- (여행목적) 비자 면제를 통해 베트남 영토 내에 입국 가능
 - * 푸꾸옥 섬 內(30일 미만), 푸꾸옥 섬 外(15일 미만), E-visa(30일 미만), DL비자(30일 이상) 신청 가능
- (학업목적) DH비자 신청 및 입국 가능
 - * 임시 거주증으로 간주
- (방문·근로목적) 체류 기간별 상이
 - 30일 미만 : 비자 면제 또는 E-visa
 - 30일 이상 : 초청·보증기관을 통한 비자 면제 또는 비자 발급
 - * 가능한 임시 거주증 발급 요망



베트남 노동법에 대한 이해 2 – 코로나 19와 노동법 규정, 대응방안

* 지난달 법률 소식 ‘베트남 노동법에 대한 이해 1 – 개정노동법 주요내용’에 이은 내용입니다.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 이 재 국 고용노동관
jglee19@mofa.go.kr

내년(2021.1.1.)부터 시행되는 개정노동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소개한 지난 8월 첫째주에 이어, 이번 9월 첫째주에는 특히 우리기업이 질의가 많은, 코로나 19와 관련된 베트남 노동법상의 급여지급 규정과 해석,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다음달부터는 우리기업들의 주요질의에 대해 매월 1회 연재할 계획이다.

. . .

1.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의 “COVID-19 전염병 관련, 업무가 중단되는 동안의 근로자 급여지급 가이드(1064 / LDTBXH-QHLDLTL, 2020.3.25)”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동 가이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급여지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우선, 노동법 제9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업이 중단된 원인이 사용자의 과실인지, 근로자의 과실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원인에 의한 것인지 검토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둘째, ①관할기관의 요구에 의해 회사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 ②관할기관의 요구에 따라 격리되어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 ③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사용자, 격리자 등으로 근무가 중단된 근로자는 노동법 제98조제3항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즉 급여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이 합의하되, 지역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셋째, 원부자재 수급, 전반적인 생산 축소 등 시장상황으로 업무를 충분히 배정할 수 없다면, 사용자가 노동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다른 직무로 배치 전환하되, 업무중단 기간의 장기화로 기업의 비용 지불능력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노동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만약 기업들이 일자리를 축소해야 할 상황에까지 이른다면 노동법 제38조(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또는 제44조(정리해고)에 따라 근로자들을 조정(인원수)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정부는 코로나 19 발생으로 관할기관의 요구 등으로 업무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소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에 대해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원부자재 수급, 발주(오더) 취소, 전반적인 불황 등의 경우에는 ①근로자를 다른 직무로의 배치전환, ②근로계약의 이행정지, ③해고의 순으로 기업이 대응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업현장에서는, 특히 섬유·봉제·신발 등 코로나 19로 인한 불황의 여파가 큰 노동집약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고 기업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 하에서 기업이 노동법 제116조에 따라 무급휴가를 선택할 수 있는 지가 논란이 되었다.



2. 베트남 노동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무급휴가의 가능성

베트남 노동법 제116조제3항은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무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에서도 무급휴가의 조건,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다. 이러한 법적 흠결 속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생존이 어려운 기업이 무급휴가를 활용할 수 있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대사관의 구두·서면질의에 대해 모두 무급휴가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답변한 바 있다. 실제 최근 베트남 북부 하남성에서 무급휴가를 선택한 봉제기업이 노동감사에서 문제가 되었고, 특히 하남성 노동보훈사회국은 동 기업이 작업 중단을 선택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보다, 무급휴가를 실시한 것을 지적하였는데, 동 기업은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의 서면답변을 하남성에 제출함으로써 제재를 면한 바 있다. 한편, 베트남 FLC 그룹의 땀부항공의 경우에도 3개월의 무급휴가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쌍방의 합의를 요하는, 노동법 제 제32조의 근로계약의 이행정지와 제116조의 무급휴가의 차이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구별의 실익이 크지 않으나,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가의 경우 근로계약이 중단없이 계속되는 데에 비해, 근로계약의 이행정지는 근로계약이 정지된 기간만큼 향후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고용노동관의 입장에서, 우선 현장의 구인난이 심각한 베트남의 고용상황을 고려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급적 고용유지 입장에서 기업이 판단하길 권한다.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상황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거쳐 최소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기업여건이 관철다면 근로자의 이직감소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급적 현재와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을 권유하고 싶다.

다만, 경영여건이 상당히 어려워 기업의 생존과 존립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에 무급휴가를 불가피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무급휴가를 활용하더라도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휴가일수 만큼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더 나아가 회사의 경영여건이 허락한다면 최저임금은 주지 못하더라도 교통비·위로비·보상비 등의 명목 하에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법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도 연차휴가의 활용도 가능하다고 서면으로 답변한 바 있다.

또한 회사가 무급휴가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실행하기 보다는 향후 발주(오더)량과 생산능력 등을 감안하여, 미리 근로자와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등 상당기간동안 준비할 것을 권장한다.



노동법 제38조(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및 제44조(정리해고)에 따른 해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노동법상 두 경우 모두 불가피성 등에 대한 기업의 증빙(특히 노동감사에 대비)이 있어야하고 노사관계의 급격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여건이 허락한다면 노동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양 당사자들이 계약해지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도 근로계약의 종료는 양 당사자들의 합의로 해지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나 근로자가 노동법에 따라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 •

내년(2021년)에는 전면개정된 노동법이 시행되고 우리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우리대사관은 6월·7월에 베트남 북부지역과 중부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베트남 노동법 순회설명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코참·코트라·노사발전재단·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9.8(화) 오후 빈증성, 9.9(수) 오전 동나이성, 9.9(수) 오후 바리아붕따우성, 9.10(목) 오전 롱안성, 9.11(금) 오후 호치민시 등 베트남 남부지역에서도 “찾아가는 베트남 노동법 및 노무관리 순회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베트남 노동법 및 인사노무 관련 주요사항은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정책-경제관련법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관련 노동법 조항>

제31조: 근로계약과 다른 직무로의 배치 전환

1.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으로 인하여,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을 예방 및 극복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으로 인하여, 전기 또는 수도시설의 불량으로 인하여 또는 생산 및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근로계약과 다른 직무로 배치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기간은 연간 60일을 넘지 못한다.
2. 근로자를 근로계약과 다른 직무로 배치 전환할 경우 사용자는 적어도 3일 전에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배치전환 기간을 명확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배치 전환하는 직무는 근로자의 건강과 성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동조 제 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새로운 직무에서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는다. 새로운 직무의 임금이 전직의 임금보다 적은 경우 근로자는 최초 30일의 기간동안 전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새로운 직무의 임금은 전직 임금의 85% 이상이어야 하고 정부가 정하는 지역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32조: 근로계약의 이행 정지

5. 기타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제38조 :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권

1.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c) 천재지변, 화재, 법률규정에 따른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복구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생산을 줄이고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경우

제44조: 구조, 기술 또는 경제 사정의 변화로 인한 사용자의 의무

2.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이 해고·실업의 위기에 처한 경우 사용자는 이 법 제46조에 따라 노동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어 근로자들을 해고하여야 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동법 제49조에 따른 해고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98조: 작업 중단 시 임금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는다.

1.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받는다.
2.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작업이 중단된 동일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 받되, 정부가 정한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다.
3.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정전, 단수,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 질병, 관계 국가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해야 할 객관적 사유, 경제적 사유로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작업중단시의 임금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르되, 정부가 정한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다.

제111조: 연차휴가

1. 한 사용자를 위하여 12개월 동안 온전히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 a) 통상적인 근로환경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2 영업일
- b) 노동보훈사회부가 보건부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과중·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거나 생활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미성년 근로자 또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14영업일
- c) 노동사회부가 보건부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특별하게 과중·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거나 생활조건이 특별하게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6영업일



2.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협의한 후 연차휴가 일정을 정할 권리가 있고, 이 연차휴가 일정은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통지되어야 한다.
3.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연차휴가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사용하거나, 최대 3년분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6조: 경조휴가 및 무급휴가

3. 동조 제 1항과 제 2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무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이 내용은 [하노이 한인소식]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베트남 남부 유망 투자지역 안내 - 켄터(Can Tho) 직할시

□ 켄터직할시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 면적: 1,439.2km² ▪ 인구: 1,235,171명('19년) - 도시거주 비율: 69.66%
지정학적 위치	- 켄터시는 허우강변에 면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안장(An Giang)성, 남쪽으로는 허우장(Hau Giang)성, 서쪽으로는 끼엔장(Kien Giang)성, 동쪽으로는 동탑성(Dong Thap) 및 빈롱(Vinh Long)성과 인접해 있음 - 켄터시는 롱 쉬옌(Long Xuyen) 사각지대, 까머우(Ca Mau) 반도, 동탑무어이(Dong Thap Muoi) 및 호치민시 사이의 무역지대 핵심축인 메콩 삼각주(Mekong Delta)의 중심에 위치해 있음
접근성	켄터시는 호치민시에서 169km, 까머우시에서 178km, 락자(Rach Gia)시에서 128km, 허우강을 따라 바다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음
GRDP 성장률 / 1인당 GDP	- 전년대비 7.84% 성장('19년) - 시 1인당 GDP : ~ 3,795USD/년, 전년대비 9.72% 성장('19년)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	- 총수출액 : USD 22.3억불 / 총수입액 : USD4.8억불 ('19년) - 산업별 성장률 : 공업/건설업(11.4%), 서비스업(7.74%), 농수산업(0.5%)
산업구조	공업/건설업 35.85%, 서비스업 48.03%, 농수산업: 9.23%
노무여건	- 직할시내 노동가능 인구 72.31% ('19년) - 노동 가능인구 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73.5%('19년) - 직업교육 이수자 중 자격증 보유비율 58%('19년)
최저임금('20년)	- 모든 군 (군명 : Ninh Kieu, O Mon, Binh Thuy, Cai Rang, Thot Not): 3,920,000VND=168USD(2급지) - 모든 현 (현명 : Vinh Thach, Co Do, Phong Dien, Thoi Lai): 3,430,00VND=147USD(3급지)
외국인투자	- 켄터시 투자 총 외국인투자는 86개 프로젝트, 726.35백만 달러 ('19년) (한국투자) 14개 프로젝트 총 268백만 달러, 켄터시에 투자하는 국가 (22개) 중 1위

□ 투자환경

○ 뛰어난 접근성 및 물류인프라

- (국도) 켄터를 가로 지르는 국도는 1번 국도, 91번 국도, 80번 국도, 91B번 국도, 허우강 남부 루트 및 켄터-비탄(Vi Thanh) 루트 등 6개로서, 켄터와 호치민시 및 다른 지방을 편리하게 연결함. 특히 36개현 모두에는 마을 중앙으로 연결되는 자동차 도로가 형성되어 있음.
- (고속도로) 호치민시에서 켄터까지의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호치민시-쑹르영(Trung Luong) 구간은 완공되었고, 쑹르영(Trung Luong)-미투언(My Thuan)-켄터 구간은 현재 공사 진행중으로 2021년 이전에 완공 될 예정임.



- (수로) 건너시에는 호치민시-까머우 루트와 호치민시-끼엔루옹 (Kien Luong) 루트 등 두 개의 국영 수로가 있으며, 이들은 메콩 삼각주의 양대 주요 국가 수로임. 또한 건너시에는 수로 운송 개발에 편리하게 지역 전체에 걸쳐 강, 운하 및 도랑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 바다에서 딩안(Dinh An)강 하구를 통해 건너로 이어지는 허우강상의 선박 교통은 10,000 DWT 및 20,000 DWT 용량의 선박들이 시의 강 항구 및 해안항구 시스템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항만)

- + 차녹(Tra Noc) 항구 : 5,000 ~ 10,000 DWT의 선박을 수용하여 연간 1.0-1.5백만톤을 통관할 수 있으며, 2020년에는 연간 2.5-3.0백만톤 규모를 통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황지예우(Hoang Dieu) 항구 : 최대 10,000 DWT의 선박 수용하여 연간 2.0-2.5백만톤을 통관할 수 있으며, 2020년에는 연간 3.0백만톤 규모를 통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까이꾸이(Cai Cui) 항구 : 최대 20,000 DWT의 선박 수용하여 연간 3.5-4.0백만톤을 통관할 수 있으며, 2020년에는 연간 6-7백만톤 규모를 통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항공) 건너 국제공항은 ICAO 표준에 따른 4E 국제공항으로서 3,000mx45m의 활주로 및 20,750m² 여객 터미널을 보유하여, 연간 300만명의 승객을 수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향후에는 아세안과 동북아 국가로 추가 국제노선이 개방될 것으로 보임.



○ 관광 및 자연 조건

- 켄터시의 전형적인 관광 유형 :

- + 강과 정원의 생태 관광 : 까이랑 (Cai Rang) 수상 시장, 풍디엔 (Phong Dien) 수상 시장, 꼰손 (Con Son) 및 땀록 (Tan Loc)과 같은 과일 섬 투어를 통해, 야간 강 투어 즐기기, 시골 특산물 맛보기, 남부 아마추어 음악 감상 등이 가능함
- + 문화-역사 관광 : 박물관, 공동 주택, 탑, 사원 및 전통 수공예 마을 등
- + 컨퍼런스,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와 결합 된 관광 (MICE 관광) : 남부 지역에서 가장 발달된 인프라와 함께 레스토랑, 호텔 및 대규모 컨벤션, 세미나 및 박람회 시스템을 갖춘 MICE 관광은 켄터시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메콩 삼각주에서 컨퍼런스, 세미나, MICE 여행의 첫 번째 선택지가 되고 있음.

- 자연 조건: 일반적으로 켄터의 기후와 토양은 다양한 작물과 동물들이 있으며, 농업개발에 매우 유리함. 약 11만5천ha의 재배지에 쌀, 채소, 과일나무등을 재배하는 켄터시에서는 연간 1백만톤 이상의 벼 (여기에서 50만 톤 이상의 쌀이 가공 후 수출됨), 10만 톤 이상의 과일, 약20만 톤의 수산물 및 2만 톤의 가축 및 가금류의 육류를 생산할 수 있음. 켄터에는 또한 다양한 종류의 열대 과일이 있음. 또한 강과 수량이 풍부한 논은 민물고기, 새우 및 기타 수생종의 생존에 최적 조건을 제공함.

○ 인센티브 정책 지원 : 켄터시에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사회경제 낙후지역 및 일반 사회경제지역의 구분이 없으며, 경제특구도 존재하지 않음. 타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기의 인센티브 규정에 따라 적용함.

구분	투자지역, 분야	법인세/수입세/토지세	감면, 면제 기간
공통	고정자산 투자용 설비, 기계수입 시	수입세 면제	
	수출용 재화 생산용 원부자재 수입 시	수입세 면제	5년 간
	일반공단, 경제특구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투자할 시	신용 대출 우대 적용	

□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 켄터시 기획투자부의 2019년 사회·경제 상황, 국방·안보 및 2020년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까지 켄터시 외국인투자는 총 86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726.35백만 달러가 투자등록 되어있으며, 이중 총 474.05백만 달러가 투자집행 되어 투자집행율은 65.26% 임.

○ 한국계 투자

- 한국기업의 투자는 현재 총 14개 프로젝트에 걸쳐 268백만 달러가 투자등록 되어있으며, 켄터시에 투자하는 22개의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켄터시 공단의 프로젝트들 중에 가장 큰 FDI 프로젝트는 운동화 분야에서 총 투자금액이 172백만 달러인 태광 켄터 유한회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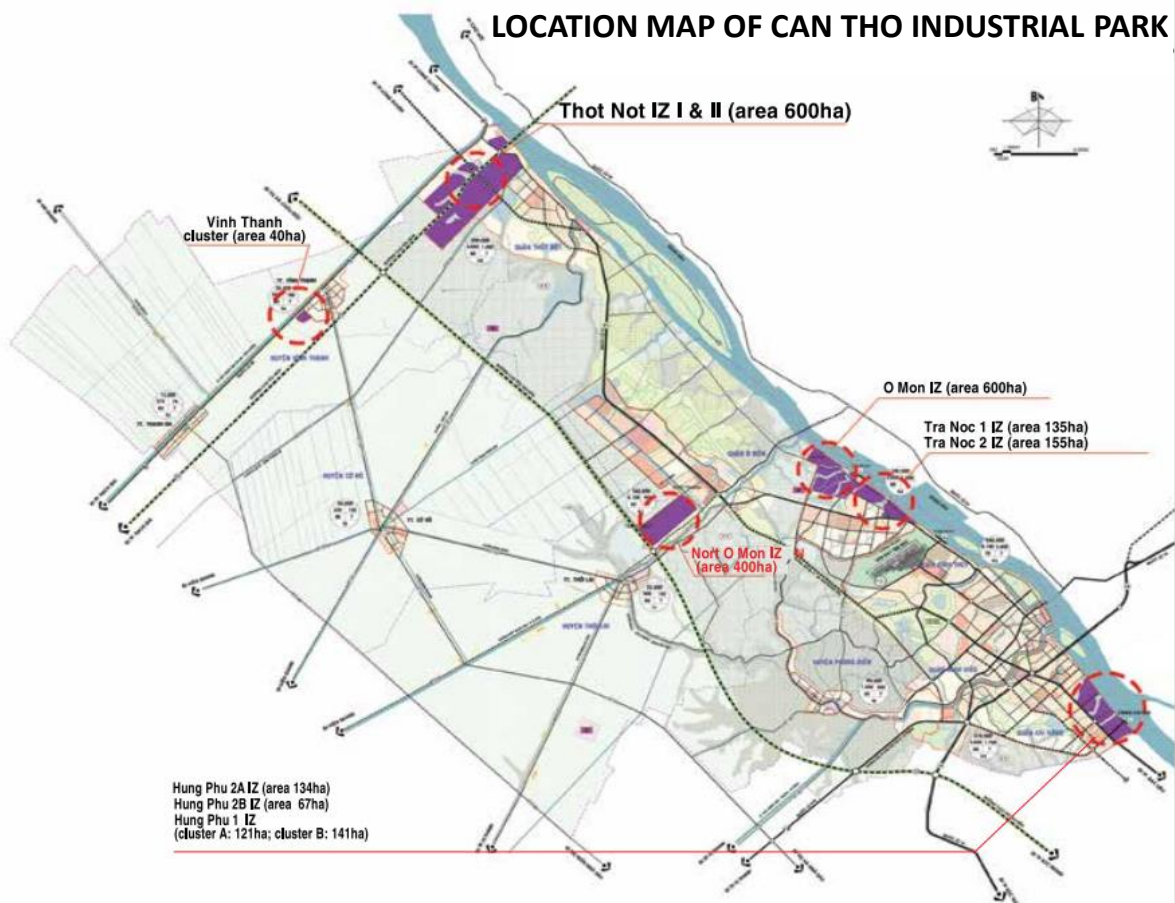
○ 켄터시 공단 내 10대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순번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금액 (달러)
1	Taekwang Co., Ltd	운동화 생산	한국	171,487,093
2	Wilmar Agro Vietnam Co., Ltd	식물성 기름 가공, 농산물 및 식료품 구매 및 가공	싱가포르	61,100,083



3	Pepsico Vietnam Co., Ltd 의 지점	음료수 생산	네덜란드	32,000,000
4	Pataya Food Industries Vietnam Co., Ltd	통조림식품 및 냉동식품 사공 (해산물, 농산물, 농축산 등)	태국	12,740,000
5	Cargill Viet Nam Co., Ltd 의 지점	가축 사료 및 해산물 생산	싱가포르	8,172,000
6	Kwong Lung Meko Co., Ltd	수출용 깃털 및 의류 가공	대만	11,700,000
7	Honoroad Vietnam Aquatic Feed Ingredient Processing Co., Ltd	수생 부산물 가공	세이셸	5,175,670
8	Tri-Viet International Co., Ltd	장갑 생산	일본	3,000,000
9	Meko Food Processing Factory	식품 가공	홍콩	2,465,000
10	Cuu Long Fruit Garden Joint Stock Company	과즙 가공 공장	싱가포르	2,829,929

□ 공단 현황





○ 주요 공단 정보

공단명	설립년도	주요정보	투자자
Tra Noc I (차녹1공단)	1996년	- 총면적 : 135ha - 토지임대료 : 40-60USD/㎡/25년 2.5-4.0USD/㎡/년 - 인프라 비용: 0.4USD/㎡/년 - 현재활동기업 수 : 91개 - 입주율: 100%	Can Tho Industrial Park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Company
Tra Noc II (차녹2공단)	1998년	- 총면적 : 157ha - 토지임대료 : 40-60USD/㎡/25년 2.5-4.0USD/㎡/년 - 인프라 비용: 0.4USD/㎡/년 - 현재활동기업 수 : 48개 - 입주율: 89%	Can Tho Industrial Park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Company
Thot Not I (툇뚫 1공단)	2009년	- 총면적 : 104.31ha - 토지임대료 : 100-140USD/㎡/50년 - 인프라 비용: 0.4USD/㎡/년 - 현재활동기업 수 : 14개 - 입주율: 69%	Thot Not Industrial Park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Center
Hung Phu 1 (흥푸 1공단)	2005년	- 총면적 : 262ha - 토지임대료 : 클러스터 A: 110-132USD/㎡/46년 - 클러스터 B: 85-150USD/㎡/35년 - 인프라 비용: 0.5USD/㎡/년 - 현재활동기업 수 : 09개 - 입주율: 13%	- 클러스터 A: Can Tho City Development Fund - 클러스터 B: Sai Gon- Can Tho Industrial Park Joint Stock Company
Hung Phu 2A (흥푸 2A 공단)	2009년	- 총면적 : 134ha - 토지임대료 : 100-120USD/㎡/39년 - 인프라 비용: 0.36-0.5USD/㎡/년 - 현재활동기업 수 : 06개 - 입주율: 76%	BMC Building Materials and Construction Limited Liability Company
Hung Phu 2B (흥푸 2B 공단)	2009년	- 총면적 : 67ha - 현재활동기업 수 : 01개	투자자 물색 중
O Mon (오몬 공단)	계획 중	총면적 : 600ha	투자자 물색 중
North O Mon (북오몬 공단)	계획 중	총면적 : 400ha	투자자 물색 중
Thot Not II (툇뚫 2공단)	계획 중	총면적 : 400ha	투자자 물색 중



□ 투자 유망분야

- 껀터시는 메콩 삼각주의 경제, 과학·기술, 교육·훈련 센터로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FDI기업과의 협력 및 투자에 많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첨단 농업, 농업 및 수산물 가공 산업, 관광·관광 인프라, 지원 산업, 정보 기술, 도시 인프라, 운송 인프라, 물류 분야의 프로젝트, 금융 및 은행 등.
- 껀터시의 공단들은 도심에 집중되어 있고 수로 및 육로 운송에 인접해 있어 접근성 및 교통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메콩 삼각주의 항구 및 국제공항에 쉽게 접근 할 수 있음. 껀터시의 공단들은 고부가가치 및 환경 친화적인 투자 프로젝트, 지원 산업, 농업, 식품, 음료, 전기전자, 정보기술 및 제약 산업 등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를 장려함.

□ 껀터시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CAN THO PROMOTION AGENCY 껀터시 진흥 센터	Mr. Nguyen Khanh Tung (국장)	Tel: +84-292 3830 487 Email: txtt@cantho.gov.vn Website: https://canthopromotion.vn
CAN THO EXPORT PROCESSING AND INDUSTRIAL ZONES AUTHORITY 껀터시 수출가공 및 공단 관리 위원회	Mr. Lu Thanh Dong (실장)	Tel: +84-292 3830 773 Email: thanhdong@cantho.gov.vn Website: http://cantho.gov.vn/wps/portal/bqlkcxcn



대 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01. 01~2020. 08. 20 기준 누계		2020. 01. 01 ~ 08. 2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 국	8,895	70,159	463	1,040	2,966
일 본	4,586	60,259	196	442	1,650
싱가포르	2,554	55,020	153	4,598	6,543
대 만	2,764	33,200	86	823	1,254
버진아일랜드(영)	862	22,052	19	231	427
홍 콩	1,911	24,916	164	856	1,170
중 국	3,049	21,129	256	1,026	1,752
말레이시아	640	12,771	25	58	141
태 국	580	12,417	22	149	1,625
네덜란드	362	10,318	20	79	378
미 국	1,054	9,339	68	49	172
전체 합계	32,539	381,166	1,797	9,734	19,538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대 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2020. 08. 20 기준 누계		2020. 01. 01 ~ 08. 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4,968	222,940	567	4,484	9,313
2	부동산경영	921	59,681	49	520	2,873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38	27,575	6	4,040	4,016
4	호텔, 외식서비스	883	12,330	45	64	259
5	건설	1,750	13,980	61	47	274
6	도소매, 유지보수	5,041	8,332	523	339	1,208
7	물류운수	861	5,162	41	44	149
8	채광	108	4,897	1	0.41	5
9	교육, 양성	564	4,400	37	12	70
10	정보통신	2,290	3,943	155	30	210
11	농, 임, 수산	500	3,616	7	48	135
12	예술 오락	139	3,391	4	1	4
13	기술과학전문	3,445	3,532	243	84	687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78	2,859	2	0.63	10
15	의료와 사회복지	153	1,982	7	4	20
16	행정, 지원 서비스	474	990	40	16	33
17	기타서비스	143	808	3	0.42	5
18	금융, 은행, 보험	77	739	6	0.29	268
19	기타산업					
합계		32,539	381,166	1,797	9,734	19,538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분	2017	2018	2019	2020.08
수출	2,137.70	2,447.20	2,634.50	1,741.00
수입	2,111.00	2,375.10	2,535.00	1,622.10
무역수지	26.7	72.1	99.5	118.9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목명	2017	2018	2019	2020.08
각종 전화기 및 부품	45,085	50,003	51,827	31,537
섬유/직물제품	25,928	30,447	32,571	19,246
전기전자제품/부품	25,882	29,446	35,591	27,619
기계/플랜트 및 부품	12,785	16,528	18,304	15,051
신발류	14,637	16,297	18,299	10,897
수산물	8,353	8,831	8,572	5,199
목제품	7,604	8,855	10,526	7,319
수송수단 및 부품	6,967	7,985	8,500	5,176
철강제품	3,100	4,558	4,160	1,945
채소	3,517	3,822	3,764	2,259
기타	59,912	67,951	71,337	47,859
합계	213,770	244,723	263,451	174,107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2018년 순위기준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목명	2017	2018	2019	2020.08
전자제품 및 컴퓨터	33,638	42,501	51,550	38,622
기계/플랜트 및 부품	37,501	33,715	36,640	22,871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6,182	16,010	14,666	8,750
의류(원단)	11,446	12,914	13,329	7,587
철강제품	9,100	9,896	9,485	2,705
플라스틱 원료	7,355	9,097	9,012	5,263
유류제품	7,006	7,614	1,047	778
기타 금속	5,445	7,317	6,407	3,781
플라스틱 제품	5,408	5,906	6,526	4,498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5,464	5,741	5,886	3,374
기타	72,551	86,801	98.96	63,984
합계	211,096	237,512	253,508	162,213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2018년 순위기준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6	2017	2018	2019	2020.08
1	미 국	38,464	41,608	47,526	61,347	46,985
2	중 국	21,970	35,463	41,268	41,414	27,350
3	일 본	14,677	16,841	18,851	20,413	12,459
4	한 국	11,419	14,823	18,205	19,720	12,688
5	홍 콩	6,091	7,583	7,955	7,156	6,591
6	네덜란드	6,014	7,106	7,076	6,881	4,423
7	독 일	5,959	6,364	6,869	6,555	4,376
8	인 도	2,688	3,756	6,542	6,674	3,122
9	영 국	4,899	5,424	5,776	5,758	3,188
10	태 국	3,693	4,786	5,494	5,272	3,171
	기 타	60,068	77,115	79,161	82,999	51,005
	합 계	175,942	213,770	244,723	264,189	175,358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자료 / 2018년 순위 기준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6	2017	2018	2019	2020.08
1	중 국	49,930	58,229	65,438	75,452	49,369
2	한 국	32,034	46,734	47,497	46,935	28,691
3	일 본	15,034	16,592	19,011	19,526	12,785
4	대 만	11,221	12,707	13,228	15,173	10,391
5	미 국	8,708	9,203	12,753	14,365	9,238
6	태 국	8,796	10,495	12,023	11,656	6,768
7	말레이시아	5,114	5,860	7,450	7,291	4,279
8	인도네시아	2,971	3,640	4,918	5,703	3,273
9	싱가포르	4,709	5,301	4,524	4,091	2,426
10	인 도	2,746	3,940	4,147	4,538	2,962
	기 타	31,999	38,395	46,523	48,341	31,685
	합 계	173,262	211,096	237,512	253,071	161,867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자료 / 2018년 순위 기준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08
수출	32,651(17.6)	47,749(46.3)	48,629(1.8)	48,178(-0.9)	29,467(-7.4)
수입	12,495(27.4)	16,176(29.5)	19,632(21.4)	21,071(7.3)	13,670(-0.7)
무역수지	20,156	31,573	28,997	27,107	15,797

자료원 : KOTIS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6	2017	2018	2019	2020.08
반도체	4,574(59.3)	9,235(101.9)	10,939(18.5)	10,730(-1.9)	7,471(-2.2)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512(98.4)	7,367(193.0)	8,909(20.9)	7,970(-10.5)	4,733(-1.6)
무선통신기기	5,192(22.2)	3,286(-36.7)	2,632(-19.9)	2,933(11.4)	2,202(16.7)
기구부품	1,722(39.6)	2,612(57.7)	2,332(-10.8)	2,230(-4.4)	1,390(-8.4)
석유제품	1,088(231.2)	1,978(81.0)	1,980(-0.4)	2,194(11.0)	843(-29.6)
합성수지	1,203(8.4)	1,442(19.8)	1,659(15.1)	1,624(-2.1)	994(-7.9)
플라스틱 제품	864(16.9)	1,152(54.9)	1,205(4.6)	1,210(0.4)	727(-11.4)
편직물	1,077(10.3)	1,118(3.8)	1,106(-1.0)	996(-10.0)	515(-21.3)
철강판	820(-2.3)	985(20.1)	1,049(6.5)	1,158(10.4)	688(-11.1)
광학기기	437(56.4)	794(81.7)	944(18.9)	946(0.2)	630(-7.3)
기타	12,676	18,808	15,874	16,187	9,274
합계	32,651(17.6)	47,749(46.3)	48,629	48,178(-0.9)	29,467(-7.4)

자료원 : KOTIS(MTI 3단위 기준) / 2018년 순위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6	2017	2018	2019	2020.08
무선통신기기	3,145(113.9)	3,964(26.0)	4,835(21.4)	5,691(17.6)	3,619(-1.0)
의류	2,426(9.2)	2,874(17.4)	3,570(24.2)	3,646(2.1)	1,999(-13.8)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56(-57.4)	604(976.6)	1,137(88.3)	1,197(5.2)	739(-19.7)
신변잡화	642(19.2)	797(24.2)	980(23.1)	1,053(7.4)	725(5.1)
목재류	428(23.1)	511(19.4)	793(55.1)	657(-17.1)	414(-10.2)
컴퓨터	552(38.0)	560(1.4)	534(-4.6)	679(25.9)	687(59.5)
기구부품	268(30.7)	496(89.9)	445(-10.4)	512(15.1)	299(-0.7)
산업용 전기기기	287(28.8)	317(10.3)	416(31.1)	479(14.8)	357(14.0)
반도체	123(10.5)	374(203.7)	396(5.8)	471(19.1)	402(54.9)
영상기기	340(126.7)	400(17.7)	329(25.6)	356(-2.0)	273(12.0)
기타	4,066	5,279	6,197	6,330	4,156
합계	12,495(27.4)	16,176(29.5)	19,632(21.4)	21,071(7.3)	13,670(-0.7)

자료원 : KOTIS(MTI 3단위 기준) / 2018년 순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19~2020년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시 기	단 위	국 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19년(연간)	%	0.7	5.9	4.3	5.02	7.02
		2020년 2Q	%	-13.2	-16.5	-17.1	-5.32	0.36
		2020년 3Q	%	N/A	-16.5	N/A	-2.9~-1.1*	N/A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19년(연간)	-	100	N/A	114.6	148.65	9.1
		2020년 7월	-	101.8	-42.1	116.2	N/A	1.1
		2020년 8월	-	N/A	-22.5	N/A	N/A	-0.6
	구매관리자지수 (PMI)	2019년(연간)	-	N/A	51.6	105.2	50.1	N/A
		2020년 7월	-	50.2	48.4	100.7	46.9	47.6
		2020년 8월	-	50.1	47.3	N/A	50.8	45.7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19년(연간)	-	100	N/A	86.2	124.3	N/A
		2020년 7월	-	99.2	N/A	N/A	86.2	N/A
		2020년 8월	-	99.8	N/A	N/A	86.9	N/A
	소매판매	2019년(연간)	-	N/A	N/A	139.5	228.16	11.8
		2020년 7월	-	86.8	1.2	138.8	194.06	4.3
		2020년 8월	-	N/A	N/A	N/A	194.62	1.9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19년(연간)	%	N/A	2.5	0.7	3.03	2.79
		2020년 7월	%	-0.4	2.7	-1.3	1.54	3.39
		2020년 8월	%	-0.3	2.4	N/A	1.32	3.18
투자	고정자산투자	2019년(연간)	%	1.0	N/A	1.4	4.45	N/A
		2020년 2Q	%	N/A	N/A	N/A	-2.74	N/A
		2020년 8월	%	N/A	N/A	N/A	-8.5~-6.6*	N/A
고용	실업률	2019년(연간)	%	2.3	5.1	3.3	4.69	1.98
		2020년 2Q	%	2.4	17.7	4.7	7.33~9.2*	2.73
		2020년 3Q	%	2.9*	10.0	N/A	9.2*	N/A
무역	수출증가율	2019년(연간)	%	-4.2	1.5	-1.7	-7.33	8.1
		2020년 7월	%	-8.1	-9.6	3.1	-9.9	0.3
		2020년 8월	%	-4.7	N/A	N/A	-8.36	2.5
	수입증가율	2019년(연간)	%	-2.1	-4.8	-3.5	-9.33	7
		2020년 7월	%	-10.0	-24.4	-8.7	-32.5	-2.9
		2020년 8월	%	-9.4	N/A	N/A	-24.19	2.8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 전망치는 *표기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 휴대전화 부품 관련 정책간담회 개최

- 목적 : 베트남 정부의 산업별 정책담당자와 해당산업 한·베 기업경영진들과의 의사소통 지원을 통한 교역·투자 활성화 도모.
베트남 정부의 산업 발전전략, 정책방향, 투자유치 전략 등 청취 및 한·베 기업경영진들의 정책 제언.
- 일시 : 2020년 10월 7일(수) 13:30 ~ 17:00
- 장소 : 베트남 무역투자청(Vietrade) 청사 5층 강당
(5th Floor, 20 Ly Thuong Kiet, Hoan Kiem, Hanoi)
- 참석자
 - 베트남 산업청(VIA), 투자청(FIA), 무역청(Vietrade), 코트라,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
- 주요내용 : 산업발전정책(VIA), 투자유치전략(FIA), 우리기업 경영현황, 대화 및 정책제언
- 신청 대상 :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 및 관련 사업체 관계자
- 온라인 등록 : 하기 링크를 누르시면 신청 링크로 자동 연결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4z4HNlaSmJl-zhOJOcVf5Hjj00xdsQbdfp29Lh-fCMobA/viewform>
- 신청 문의 : 코리아데스크
 - 최동철 팀장 / dcchoi@kotra.or.kr / 093 4557363
 - Ms. Tran Thu Quynh / thuquynh1124@kotra.or.kr / 094 7595626

시 간	내 용	연 사
13:30 ~ 14:00	참가자 등록	
14:00 ~ 14:05	환영사	비엠티레이드 청장
14:05 ~ 14:10	인사말	이종섭 KOTRA 동남아대양주지역 본부장
14:10 ~ 15:10	산업 발전 정책과 방향 (휴대폰 부품)	베트남 산업청(VIA)
15:10 ~ 15:40	해당 분야 투자유치 전략 및 인센티브	베트남 투자청(FIA)
15:40 ~ 16:10	부품업체 진출 현황 및 경영현안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
16:10 ~ 17:00	그룹 토론, 정책제언 및 네트워킹	



□ ITU Virtual Digital World 2020 개최 안내

- 주관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 기간 : 2020년 10월 20일(화)-22일(목)
- 웹사이트 : <https://digitalworld2020.vn/>
- 신청방법 : hangmt@mic.gov.vn, 0946 084 636

□ VIMEXPO 2020 개최 안내

(베트남 제조업 및 지원산업 국제전시회 Vietnam International Supporting Industry & Manufacturing Exhibition)

- 주관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Industry Agency(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C.I.S Vietnam Advertising & Exhibition JSC
- 전시분야 : 섬유 및 의류 산업, 신발 산업, 전자 산업, 자동차 제조 및
조립 산업, 기계 산업, 첨단기술 산업
- 기간 : 2020년 12월 9일(수)-11일(금)
- 장소 : Hanoi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 I.C.E Hanoi
(No.91 Tran Hung Dao Street, Hoan Kiem Dist., Hanoi)
- 웹사이트 : <https://www.vimexpo.com.vn>
- 문의처 :
 - Vietnam industry Agency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s. Thu Thao (E: thaoptt@moit.gov.vn / M: 0975351983)
Ms. Minh Thao (E: thaoptm@moit.gov.vn / M: 0912310782)
 - C.I.S Vietnam Advertising & Exhibition Joint Stock Company
Ms. Ha Giang (E: giang@cisvn.com / M: 0968999693)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 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84 24-3946-0511 joara@kotra.or.kr <저작권자 © KOTRA >